

KWDI 이슈페이퍼

수행과제명 능력중심사회에 기반한 여성직업능력개발체계 분석 및 정책과제(II)
과제책임자 오은진 선임연구위원 (Tel: 02-3156-7126 / e-mail: eunjin5@kwidmail.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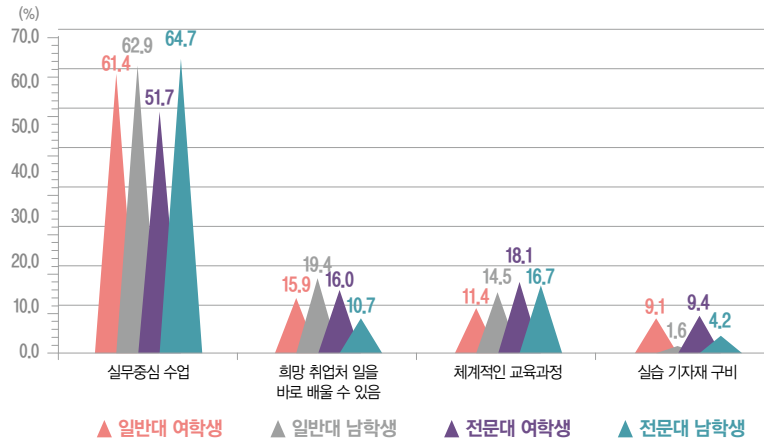
성인지적 능력중심 교육과정 운영 및 성과를 위한 정책과제

초 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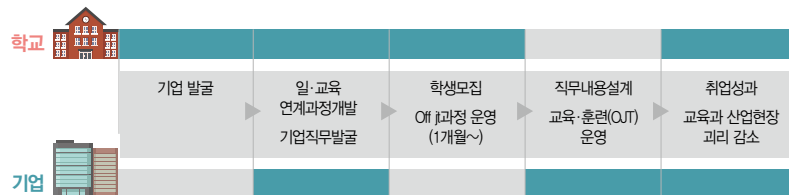
- 대학 교육과정에서의 NCS 도입과 함께 채용방식 및 문화의 변화 속에서 여성의 노동시장 성과가 어떤 변화를 보이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대학과 기업의 변화가 청년여성의 노동시장 성과에 어떻게 기능할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정책과제 발굴이 필요함.
- 본 연구는 지난 2014년부터 대학의 교육과정 및 취업연계시스템에 지속적으로 도입하고자 노력했던 NCS 기반 교육과정 운영의 성과와 문제점을 제도적 관점에서 바라보기보다는 정책 수요자인 대학, 학생, 기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분석하였음. 특히 NCS 기반한 교육과정 관련 제도가 여학생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에 초점을 맞춰 분석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대학의 능력중심 교육과정 운영의 성과와 한계 그리고 향후 정책과제를 제안하고자 하였음.
-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IPP형 일·학습병행제 및 NCS기반 교육과정 등은 여학생들의 취업 관련 능력을 향상시키고 취업에도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 판단되나, 많은 여학생들이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하기에는 규모나 프로그램 내용에 한계가 있어, 규모의 확대 또는 학과의 특성에 따른 다양화가 필요하며, 이와 관련한 프로그램 운영과정에서 기업과 학교 등의 성인지적 운영이 필요함을 제안함.
- 일반대학에서의 청년여성 취업성과 제고를 위한 능력중심 교육과정 운영 관련 정책과제로는 ① 일반대학 여학생을 위한 학과 교육과정과 기업과의 취업연계 특화프로그램 개발, ② 개별 학과 교수들의 일·학습병행제 참여 독려와 인센티브 마련, ③ 취업 관련 학생 선호를 반영할 수 있는 수요조사 정례화, ④ 여학생 참여 확대를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전공학과 참여 유도, ⑤ 경력디딤돌이 될 수 있는 좋은 강소기업 발굴과 생애진로지도 프로그램 결합, ⑥ 여학생들의 중도탈락 방지를 위한 초기 단계에서의 세부적인 지원, ⑦ IPP형 일·학습병행제도 평가체계의 성인지적 개선, ⑧ IPP형 일·학습병행제도의 패스트 트랙 신설, ⑨ 교육훈련의 인프라가 부족한 중소기업 지원책 마련을 제시함.
- 또한 전문대학에서의 능력중심 교육과정의 활용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통해 정책과제로 ① NCS기반 교육과정 도입에 따른 현장실습의 직무연관성 강화: 학습과 일의 연계프로그램 마련, ② 직무 맞춤형과 기업 맞춤형 사이의 교육과정 균형 회복, ③ NCS 교육과정 활성화를 위한 교수들의 역량강화 방안 등을 제시함.

※ 본 연구는 지난 2014년부터 대학의 교육과정 및 취업연계시스템에 지속적으로 도입하고자 노력했던 NCS기반 교육과정 운영의 성과와 문제점을 정책 수요자인 대학, 학생, 기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제도의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하여 청년여성 취업성과 제고를 위한 능력중심 교육과정의 성인지적 운영이 필요함을 제안함.

NCS기반-교육과정의 가장 큰 장점(중복응답)



전문대의 일·교육연계 과정 모형



1. 배경 및 문제점

- ☑ 능력중심사회로 가기 위해 정부는 ‘일·학습병행제’, 후진학·후학습제도 추진 등과 함께, 국가직무능력표준(이하 NCS)을 국정과제로 완성하여, 특성화고교, 대학의 교육과정 및 채용과정에까지 NCS를 적용하도록 해왔음.
- ☑ 대학 교육과정에서의 NCS 도입 정책은 산업계가 원하는 인재양성을 통해 교육과 노동시장과의 괴리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임.
 - ▶ 전문대학의 경우 SCK사업을 통해 대부분의 학과가 NCS를 교육과정에 도입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4년제 일반대학의 경우 IPP형 일·학습병행제도를 통해 Off JT과목과 OJT에 NCS를 반영하여 수업과 훈련을 하도록 하고 있음.
- ☑ 그러나 이러한 정책환경의 변화 속에서 실제 정책 수혜자라 할 수 있는 기업, 학생, 대학들의 해당 정책에 대한 이해 및 인식과 특히 정책의 성인지성에 대해서는 별다른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음.
- ☑ 이러한 대학 교육과정에서의 NCS 도입과 함께 채용방식 및 문화의 변화 속에서 여성의 노동 시장 성과가 어떤 변화를 보이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대학과 기업의 변화가 향후 청년여성의 노동시장 성과에 어떻게 기능할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정책과제를 발굴할 필요가 있음.

2. 조사 및 분석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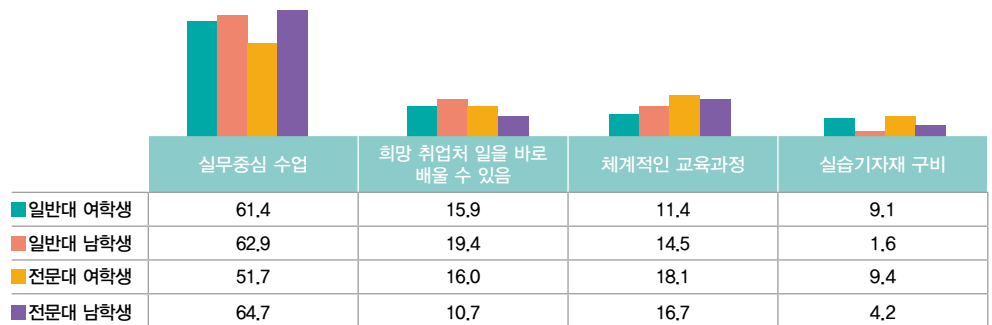
4년제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에서 수행하고 있는 NCS기반 교육과정이 여학생 진로와 취업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학생 대상의 설문조사, 교수 대상 델파이 조사, 학생·교수·기업 관계자 대상 초점집단면접 등을 실시함.

능력중심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4년제 일반대학과 전문대학 학생들이 느끼는 NCS기반 교육과정의 장점은 “현장중심의 실무교육”에 있으며, 특히 전문대학에서는 체계적인 교육과정의 운영을 장점으로 파악하고 NCS를 교육과정에 도입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

NCS기반 교육과정의 가장 큰 장점(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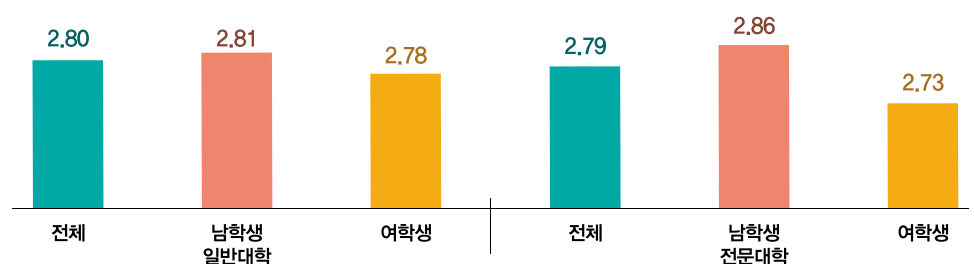
(단위 : %)



- 일부 학생들이 문제점으로 지적한 내용은 NCS가 교육과정에 도입되었다 하더라도 이에 맞는 학습목표, 내용, 평가들이 서로 맞지 않아 사실상 교육과정의 완결성이 낮다는 의견(일반대생 34.9%)이었고, 전문대학생들은 실무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개편하는 과정에서 이론의 비중이 감소하며(26.4%), 학습목표·내용·평가가 잘 맞지 않는 부분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였음(22.1%).
- 일반대학(남학생 2.81점, 여학생 2.78점)과 전문대학(남학생 2.86점, 여학생 2.73점) 모두 NCS기반 수업과정에 대한 남학생의 만족도가 여학생에 비해 높게 나타나며 전문대학의 경우는 전체 항목에서 남학생의 만족도가 더 높았음. 일반대학의 경우 만족도를 느끼는 이유가 성별로 다른데, 여학생들은 NCS기반 수업이 취업처의 직무를 더 잘 알게 해주기 때문인 것(남학생 75.8%, 여학생 77.3%)으로 나타나는 한편, 남학생들은 실습기자재(남학생 71.0%, 여학생 52.2%), 현장실습(남학생 74.2%, 여학생 68.2%) 등에 대한 만족도가 더 높음.

NCS기반 수업만족도 평균

(단위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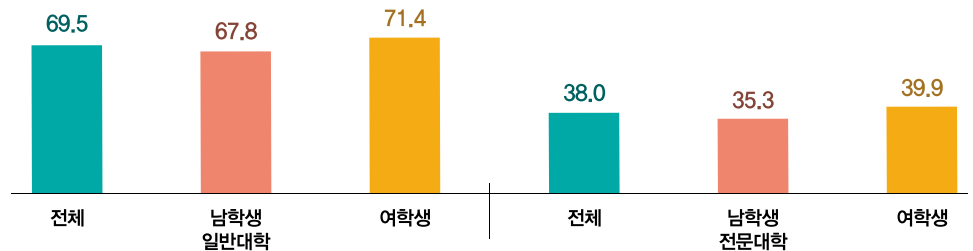
- 학교에서 운영하는 NCS 전담교수제와 관련하여, 일반대 여학생들의 경우 76.5%가 현장실습 관련하여 도움을 준다는 의견이 높은 반면 남학생들의 경우는 17.2%(여학생 2.6%)가 장래의 진로 상담 등의 멘토 역할에 동의하는 부분이 많았음. 전문대학의 경우 남학생들은 현장실습에 가고 싶은 회사 등을 참여시키는 역할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응답이 많았음(남학생 19.3%, 여학생 6.7%).
- NCS기반 수업을 지원하는 전담지원센터가 학교에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일반대학의 경우 40%가 넘었으며 전문대학의 경우도 60% 이상이 센터의 유무에 대해 모르고 있었음.

📍 NCS기반 교육과정과 취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 ▶ NCS기반 교육과정이 취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일반대학생과 전문대학생 모두 긍정적인 평가가 높았으며, 일반대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는 더 긍정적인 반면 전문대학의 경우는 여학생들이 부정적인 의견이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음.
- NCS기반 채용과 관련해서 일반대학, 전문대학 모두에서 여학생들의 관심이 남학생보다 더 높았으며, 전문대생보다는 일반대생의 관심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일반대학의 경우 남학생 67.8%, 여학생 71.4%, 전문대학의 경우 남학생 35.3%, 여학생 39.9%가 NCS기반 채용에 대해 관심 있다고 응답했음.

NCS기반 채용에 대한 관심정도

(단위 : %)



- 그러나 학교에서 전문적인 NCS기반 채용에 대한 지원을 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으며, 30~40%는 특별한 지원이 없었다고 응답하였음. 지원을 해 준 경우도 대체로는 특강 중심의 수업 진행 정도였으며, 이에 민간학원에 등록해서 정보를 얻고 지원을 받는 학생들도 상당수 있었음.

📍 일·학습병행제도를 통해 본 능력중심 교육과정 운영과 여성 취업

- ▶ 대학이 일·학습병행제에 참여한 계기는 취업 때문인 것으로 나타남. 졸업생의 취업률이 모든 정부지원 사업에서 점점 중요해지기 때문에 대학 입장에서는 취업률을 높일 수 있는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향을 보임.
- ▶ 일·학습병행제에 참여한 여학생들이 이 제도의 목적과 필요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참여한 비중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보임. 우선 학과 교수님의 권유, 학교에서의 대대적 홍보 등에 의해 참여를 결정한 비중이 더 크다 할 수 있음. 또한 일·학습병행 과정의 우수성보다는 졸업 이후 취업이 보장된다는 점에 더 많은 이점을 느껴 참여했다고 볼 수 있음.
- 일·학습병행제 참여 기업에서 여학생에 대한 채용에서의 차별 등은 인터뷰를 통해서도 발견되지 않았음. 그러나 학생들을 기업과 매치시키는 역할을 하는 학교관계자들은 여학생 취업이

상대적으로 더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 여전히 초기 입직에서 여학생들에 대한 기업의 편견이 작용함을 알 수 있음.

- 교수들도 일·학습병행제 참여 기업에서 처음에는 남학생 중심으로 보내달라는 의견이 있었고, 여학생들이 남학생에 비해 자신들의 구체적 진로 준비가 더 늦고, 이런 이유로 일·학습병행제에 참여하는 여학생이 적은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함. 이들은 일·학습병행제가 기업의 여성 채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면서 여학생들도 기업 분위기를 탐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학생에게 더 유리한 제도라고 강조하였음.
- 여학생들의 경우, 자신들이 원하는 직무와 이후 경력개발 맵에 적절한 회사의 경우 만족도가 더 높았음. 특히 여성의 경력개발과 관련한 롤모델이 전혀 존재하지 않은 기업에 있는 경우 결혼 이후 경력단절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었음.
- ▶ 학교에서 받은 수업의 직무연관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확인되는데, 실제 해당 기업의 실무를 배우는 것이지 그 과정이 NCS기반 과정으로 연계되어 배우는지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 참여 기업들은 일·학습병행제가 OJT 이후에 다시 채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인력 채용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로서 좋다는 의견이었음.
- 학생들 역시 해당 기업에 OJT를 나가지만 꼭 회사에 취업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 조건이 맘에 들지 않는다면 다시 구직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제시하였음.

📍 전문대학의 능력중심 교육과정 운영과 여성 취업

- ▶ 대체로 학생들은 NCS기반 교육과정과 현 직무 간 일치도가 높아 만족스러워했음. 특히 자격증 취득과 관련하여 실습중심의 학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만족도가 더 높아지는 경향도 있었음.
- 단, 학과의 성격이 범용성이 있거나 학과가 다양한 직무를 모두 소화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NCS기반 교육과정 운영이 원활하지 않은 측면이 있었음.
- ▶ 교수들은 NCS기반 교육과정이 대체로 지금까지의 교육과정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오히려 국가가 필요한 내용을 모두 정해줘서 산업체와의 긴밀한 관계없이도 교육과정을 개발할 수 있어서 좋다는 의견이 다수였음.
- 그러나 학과의 교육내용이 취업처에 바로 연계되지 못하는 범용적 학과의 경우 교수와 학생 모두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음.
- ▶ 교수들은 이미 전문대생의 취업시장은 다른 문제들 때문에 상당히 왜곡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있었으며, 취업률이 대학 평가와 재정지원에 중요한 지표가 된 2000년 이후, 그리고 학생자원이 감소한 2010년 이후부터 기업과 학교와의 직무불일치 해소를 위한 노력이 상당히 있어왔기 때문에 NCS기반 교육과정으로 새롭게 노동시장에 다른 메시지를 줄 것이라 생각하지는 않았음.
- ▶ 전반적으로 전문대학에서 여학생들의 취업이 더 어렵다는 인식을 학생들은 별다르게 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그러나 교수들은 여학생들이 남학생에 비해 직업의식이 낮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음. 이러한 인식은 전문대학이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와 바로 연관이 되는데, 기업의 차별 보다는 열악한 중소기업의 환경을 여학생들 자신이 견디지 못하는 문제를 더 큰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음.

📍 교수들의 능력중심 교육과정에 대한 운영과 성과 인식에 대한 델파이조사 결과 분석

- ▶ 일반대학 일·학습병행제와 관련하여 교수들에 따르면 여학생들의 참여가 남학생들보다 저조한데 (여학생의 일·학습병행제 참여비율 35.6%, 장기현장실습 37.4%), 이와 같은 여학생 참여 저조의 가장 큰 원인은 일·학습병행제 참여 학과의 전공계열 분포와 관련이 있음.
- 일·학습병행제를 개설한 학과 중 거의 절반에 가까운 46.9%의 학과가 공학계였으며, 자연계까지 합치면 55.1%가 이공학계열이고, 여학생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인문계는 12.2%에 불과함. 장기현장실습의 경우에도 공학계가 36.0%로 전체 삼분의 일 이상을 차지하는 반면, 여학생 참여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인문계는 15.5%에 불과함.
- 2차 델파이 조사 결과에서도 전문가들의 83.4%가 향후 일·학습병행제의 참여 학과를 인문, 사회계열로 확대할 필요성에 대해서 동의하였으며, 성인지적인 일·학습병행제의 운영을 위해서는 향후 여학생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학과나 계열들을 적극 동참시키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 본 교수 대상 델파이 조사에서 적지 않은 사례들이 일·학습병행 선발 시 기업에서 남학생을 선호하고, 일부는 남학생과의 매칭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조사되었음. 일·학습병행제의 경우는 학생 선발 자체가 곧 직원 채용으로 연결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는 채용과정에서의 남성 선호 현상이 일·학습병행제에도 그대로 투영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임.
- ▶ 조사 결과, 여학생의 중도이탈률(5.1%)은 남학생(3.4%)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음. 일·학습병행제에서 중도이탈이 발생하는 이유는 남녀학생을 불문하고 직무불일치가 가장 컸으며, 두 번째로는 학생들의 조직생활 적응력이 떨어지는 점이 문제가 되었음.
- 현재 일·학습병행제 참여 학생과 기업 간 기대수준의 미스매치는 일·학습병행제의 모집과 추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임. 대기업을 원하는 학생들이 중소기업임에도 일·학습병행제에 참여하는 것은 그들의 전공과 관심 직무를 살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클 것이므로 이 부분의 조율이 불명확해진다면 사업에 참여할 의미를 잃고, 중도이탈할 가능성이 클 것임. 따라서 학교와 기업체가 사전에 면밀한 논의와 명확한 직무매치를 확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임.
- 특히 여학생의 경우에는 업무 스트레스에 취약한 점, 그리고 성희롱의 문제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학생들의 기업 적응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기업 측에도 Off JT 전에 성희롱, 성차별에 대한 인식과 문제의식을 갖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매뉴얼 개발 등 이러한 부분을 교육하고 인지시킬 수 있는 보다 체계적인 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음.
- ▶ 남학생에 비해 중도이탈률도 더 높고, 최종 취업을 또한 낮음에도 불구하고 본 조사에 참여한 거의 대부분의 전문가들(90%)은 일·학습병행제가 여학생의 취업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음.
- 다른 기업에 취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기업 입장에서는 실무와 조직생활을 경험하였다는 점에서 일·학습병행제 참여만으로 질 보장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학생 입장에서선 선발, 취업과정을 한번 경험했다는 것, 학교의 체계적인 관리를 받으면서 본인의 취업 역량을 개발한다는 점이 취업과정에서 큰 자신감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임.
- ▶ 전문대 교수 대상 델파이 조사에서 75%의 전문가가 NCS가 여학생의 취업률에 변화를 주지 않았다고 응답하였음.
- 이러한 이유 중의 하나는 산업체에서 NCS 채용을 하지 않는다는 점임. 채용뿐 아니라, 산업체에서는 NCS가 학생의 직무능력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어떠한 교육방식으로 진행되는지 등 NCS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낮아 학생들에게 유리한 스펙으로 활용되지도 못하는 실정임. 더구나 NCS 채용을 실시하는 기업들 대부분이 경쟁률이 높은 공기업이기 때문에 전문대 졸업 여학생들의 취업에 큰 유익이 없는 상황임.

- ▶ NCS기반 교육과정의 업데이트가 요구됨. 제2차 델파이 조사에서 전문가의 41.7%만이 NCS가 기업이나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음.
- 이외에도 NCS기반 교육과정의 융통성 확보, 탄력적 운영, 지나친 행정업무를 간소화 해달라는 의견이 우세하였음.

3. 정책제언

1. 일반대학에서의 능력중심 교육과정 운영 성과와 정책과제

📍 일반대학 여학생을 위한 학과 교육과정과 기업과의 취업연계 특화프로그램 개발

- ▶ 일·학습병행제 참여 학과들이 대체로 공과계열이 많고, 기업들도 남학생들을 선호하여 여학생들이 배제되는 경향이 있음. 여성들을 채용할 수 있는 관찬은 기업들을 학교가 적극 개발하도록 하는 특화프로그램을 기획할 필요가 있음.

📍 개별 학과 교수들의 일·학습병행제 참여 독려와 인센티브 마련

- ▶ 해당 사업은 얼마나 관찬은 학생들이 강소기업에 갈 수 있도록 학교가 유도하는가가 중요함. 대기업을 가기 위한 취업재수보다는 강소기업에서 경험을 쌓아서 더 나은 기업으로 가도록 학생들의 경력개발 지도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개별 학과들의 사업 참여가 절대적으로 중요함.

📍 취업 관련 학생 선호를 반영할 수 있는 수요조사 정례화

- ▶ 연구 결과, 4년제 일반대학에서 기업 발굴과 관련하여 학생들의 선호조사 등의 절차가 별도로 없는 것으로 나타남. 절차적으로 학생들의 선호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학교가 자체적으로 정례화된 기업 수요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

📍 여학생 참여 확대를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전공학과 참여 유도

- ▶ 구조적으로 경력단절의 위험에 처해있는 여학생들의 경우 회사의 복리후생 등을 잘 확인하고 취업해야 할 필요가 남학생들보다 많기 때문에, 학교가 기업을 일차적으로 스크리닝하여 선정하는 일·학습병행제의 경우, 여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임.

📍 경력디딤돌이 될 수 있는 좋은 강소기업 발굴과 생애 진로지도 프로그램 결합

- ▶ 대학의 역할은 대기업으로의 취업보다는 여학생들이 지속적인 경력사다리를 올라갈 수 있도록 경력디딤돌이 될 수 있는 기업을 선별하여 제공하는 것이어야 함. 또한 대학은 졸업 이후에도 학생들이 지속적인 경력개발을 할 수 있도록 생애진로지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여학생들의 중도탈락 방지를 위한 초기 단계에서의 세부적인 지원

- ▶ 여학생들의 참여가 저조한 상황에서 중도탈락률이 남학생들에 비해 높음. 학생 모집단계에서부터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심층면담과 진로지도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고, 여학생들의 진로지도 및 멘토링을 위해 산학협력 교수 여성비율 제고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IPP형 일 · 학습병행제도 평가체계의 성인지적 개선

- ▶ 현재 일 · 학습병행제 평가체계는 교육과정 운영과 기업과 연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대학 내에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여학생, 인문사회계열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서비스하도록 구조를 개편해야 할 필요가 있음.

📍 IPP형 일 · 학습병행제도의 패스트 트랙 신설

- ▶ 패스트 트랙을 신설하여 학교의 이론교육 시 학점 인정은 되지 않지만 속성으로 과목을 이수한 후 학습근로자로 근로하도록 길을 열어주는 방안과 전체 학점의 일부만 인정하면서 패스트 트랙을 운영하는 방안을 고민하여 초기에 기회를 놓친 학생들에게도 기회를 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이원화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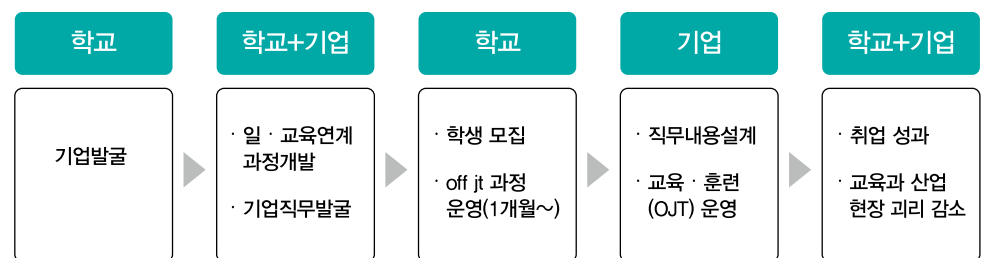
📍 교육훈련의 인프라가 부족한 중소기업 지원책 마련

- ▶ 현재 일 · 학습병행제 참여기업들은 대체로 중소기업으로, 이들은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제공하기에는 시설, 기자재, 인력이 부족함. 사업 모니터링의 간소화, 유사직무 핵심 역량에 대한 공동훈련모형 개발, 학교와 기업의 일 · 학습 병행관련 교육 · 훈련 체계화, 기업 현장교사의 역량 강화 방안 구체화 등 중소기업 지원책 마련이 필요함.

2. 전문대학에서의 능력중심 교육과정 활용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정책과제

📍 NCS기반 교육과정 도입에 따른 현장실습의 직무연관성 강화 : 학습과 일의 연계프로그램 마련

- ▶ 전문대학도 4년제 재학생 대상 일 · 학습병행제와 마찬가지로 현장실습 직무와 연계하여 교육과정을 2과목 이상 개발하고 해당 과목과 현장실습을 연계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



〈그림〉 전문대의 일 · 교육연계 과정 모형(안)

📍 직무 맞춤형과 기업 맞춤형 사이의 교육과정 균형 회복

- ▶ 지역에 기반을 둔 전문대학의 경우 해당 지역의 특색에 맞는 직무나 업무들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해왔기 때문에 범용적 직무를 일정 부분 이상 교육과정에 도입하도록 한 정책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음. 범용적 직무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방식과 일정 기업을 초점으로 교육과정을 일반화하는 방식 모두가 조금씩 수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NCS 교육과정 활성화를 위한 교수들의 역량강화

- ▶ 전문대 교수들의 경우 NCS 과목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학습목표 · 내용 · 평가가 서로 맞지 않는 등 관련 준비와 참여의지가 부족한 측면이 있음을 확인하였음. 학생들의 참여와 취업성과 제고를 위해서는 학과 교수들의 참여가 중요하므로, NCS 지원센터는 학과 교수들에 대한 정례화된 교육 및 학습과정 관련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4. 기대효과

📍 대학과 직업세계 이행과정에서 청년여성 직업능력개발의 문제점 분석 및 개선점 마련

📍 채용문화를 성별, 학벌, 학력이 아닌 능력중심으로 변화하는 고용문화 개선